

## 국내이슈



### <오페라의 유령> 한국에서도 공연 중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객석 거리두기' 의무화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조기 종연된다. 주관사 클럽서비스는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기존 폐막일보다 3주 앞당겨 다음 달 6일까지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등 전 세계 공연장이 대부분 문을 닫은 탓에 <오페라의 유령>은 한국에서만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한 자리씩 떨어졌던 관객의 75% 이상을 채워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대형 뮤지컬 사정상 조기 종연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클럽서비스는 이달 25일~다음달 27일 예매 건을 일괄 취소했으며 28일~내달 6일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용해 티켓을 재판매한다.



### 지스타 2020,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0'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결정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이번 전시회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방역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BTC관은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포함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지스타 미디어 스테이지와 스튜디오를 구성해 게임과 관련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션도 별도로 운영된다.

BTB관은 해외 바이어 및 퍼블리셔와 비즈니스 매칭 후 온라인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G-CON(지스타 게임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향후 지스타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신작 게임 소개 뿐만 아니라 트렌디 콘텐츠,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포맷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K방역, K게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뉴노멀 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해외이슈



### MS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 vs SIE 플레이스테이션 5 온라인 공개!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3대 게임쇼 E3 2020이 취소되면서 MS(마이크로소프트)와 SIE(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콘솔 게임기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만 공개했다. 콘솔 게임기 시장에서 파워 경쟁을 하고 있는 양사의 새로운 모델에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S의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이하XSX)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엑스박스 원 엑스(XB1 X)의 약 2배에 달하

는 성능을 지녔으며, 오리지널 엑스박스(XB1)보다는 약 8배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컨트롤러의 기능이 개선되었다. 직육면체 형태의 디자인은 보다 뛰어난 쿨링을 위해 메인보드를 2개로 나눠 배치했기 때문이다. 크기는 151x151x301mm이며, 무게는 4.45kg으로 크고 무거운 편이다. 추가된 게이밍 기능이 눈에 띈다. 먼저 'Quick Resume' 기능은 마지막으로 플레이된 지점을 기억해내 불러오는 기능이다. 'Smart Delivery' 기능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전 세대의 XB1 버전의 게임이 있다면 XSX 버전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능이다. 콘솔 게임기의 성능에 맞춰 게임 그래픽이나 해상도가 전환되며, 기간 제한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이전 세대 엑스박스 게이머와 XSX 게이머가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같은 게임이라도 기종이 다르다면 함께 멀티플레이를 할 수 없었지만, XSX는 다른 기종 간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함께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SIE의 차세대 콘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이하PS5)는 경쟁 기종인 XSX와 동일하게 11월 추수감사절에서 이듬해 연초까지인 홀리데이 시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물 사진과 내부 분해 과정까지 공개된 XSX와는 달리 PS5는 디자인과 주요 기능, 스펙만 공개된 상태다.

PS5의 스펙은 2016년에 출시된 PS4 Pro보다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었다. Zen 2 기반으로 제작된 3.5GHz CPU를 탑재했으며, 메모리는 용량과 대역폭 모두 2배가량 증가했다.

디자인 면에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가로/세로로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가 기본 제공되며 전통적으로 첫 런칭 시점에서 단색의 콘솔만을 출시했던 것과 달리 PS5는 투톤 컬러로 공개됐다. 기존에는 블랙이었던 메인 컬러가 화이트로 바뀐 점도 이례적이다. 게다가 가정용 PS 최초로 ODD가 없는 '디지털 온리' 버전의 PS5가 함께 발매된다. 아키텍처 또한 PC에서 쓰이는 x86/x64이다. 하위호환도 가능한데, 모든 세대의 하위호환을 강조한 XSX와 달리 오직 PS4와의 호환만 가능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